

또 하나의 나, 우리

Vol. 72 2015 AUTUMN



PLANKOREA
www.plankorea.or.kr

CONTENTS

또 하나의 나, 우리 PLAN KOREA Vol.72 2015 AUTUMN

04 Campaign

Because I am a Girl



08 지구촌을 간다 1

놀이로 하나 된 아이들, 또 하나의 가능성

10 아주특별한만남

백진희와 보건지원 후원자모임

12 지구촌을 간다2

나마스떼! 인도에서의 첫 휴가

14 Campaign

Joy&Dream Project

17 Plan Board

18 플랜 긴급구호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20 지구촌을 간다3

더불어 사는 사회 -정비기술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22 우리는 플랜가족

김석중 후원자

24 지구촌을 간다4

현대제철 미안마 해외봉사활동을 마치며

26 나눔의 행복

쥬비스

27 Plan Board

28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동티모르

29 Enjoy Plan

30 플랜 소식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기구로서 7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6천 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www.plankorea.or.kr 후원문의 02.790.5436

f facebook.com/plank.kr t twitter.com/plankorea TALK @플랜코리아 @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5동 912호 | 이메일 | kno@plankorea.or.kr
| 통권 | 제72호 | 발행일 | 2015.09.30 | 발행인 | 노영찬 | 발행처 |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Because I am a Girl



변화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2015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전 세계 빈곤토치를 위해 제정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달성기한이 종료되고, 이를 이어받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 가운데 여전히 달성되지 않은 목표들을 보완하여 그 목표를 세우고, 지구촌 빈곤토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변화는 기존 8개의 목표에서 17개의 목표로 수적인 증가를 이루고 169개의 세부목표를 세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질적으로 더 넓은 범위로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통합하여 아우르고 있습니다. 보건의 질 향상, 양질의 교육 보장, 성평등 강화와 같은 핵심 과제는 보다 탄탄하게 다뤄지며, 아동폭력 극복,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등 환경 요인에 대한 강조 등 중요한 사안들도 포함됩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Leaving no one behind)'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빈곤과 차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플랜에서는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인 여자아이들의 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외면되어 왔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교

5

육받지 못하고, 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성폭력 및 성 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여자아이의 권리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Because I am a Girl은 빈곤과 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플랜의 여아 권리신장 캠페인입니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여자아이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빈곤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6천 2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이 중 4천 5백만 정도는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또한 중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은 남자아이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출산 전 성 간별로 많은 여자아이들이 낙태되어 태어나지 못하거나,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의료, 보건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소외되어 살아갑니다. 전 세계 4억 5천만 여자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은 남자 아이들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개발도상국 여자아이 3명 중 1명은 18세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관습, 빈곤한 가정 형편,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여자아이들을 조혼으로 내몰아갑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아이들은 이른 출산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등 다시 한번 고통받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의 부족은 여자아이들을 성범죄와 노동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 시킵니다.

NO GIRL LEFT BEHIND

여자아이들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법률 제정 및 국제 협정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권리는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실제적인(real)' 성평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습과 요구들은 여자아이들을 여전히 차별과 빈곤 속에 두고 있습니다. 빈곤을 끝내기 위한 열쇠는 여자아이들의 교육입니다. 극심한 빈곤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여자아이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GIRL4PRESIDENT

교육받은 여자아이들은 의사도, 선생님도, 과학자도,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날개 모양을 만들어 사진을 촬영한 후 해쉬태그 #Girl4President을 달아 SNS에 올려주세요. #Girl4President는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응원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 여자아이들의 권리 함께 알리는 방법입니다. 여자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Because I am a Girl

PLAN
INTERNATIONAL

PLAN KOREA

교육은 여자아이들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킵니다.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로
만들어 여자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읽고 쓰는 능력과 수학적
능력, 생활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여자아이들이
건강해져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급식은 학교 등록과 출석,
졸업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자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자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자신감 향상은
여자아이들이 그들의 삶과 주변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줍니다.



매년 1천만 명의 여자아이들은 조혼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여자아이들은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힘을 갖게 됩니다.



어린 나이의 임신과 출산은 여자아이들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여자아이들에게 엄마가
될 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수입은
여자아이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까지 기여합니다. 여자아이가 중등교육을 1년
더 받을 때마다 기대소득은 15~25% 증가합니다.

모든 여자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6천 2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합니다.
교육은 여자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플랜과 함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놀이로 하나 된 아이들, 또 하나의 가능성

글 |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
사진 | 플랜코리아 홍보기획팀

한 해에 크고 작은 태풍 수십 개가 지나는 길목에 사는 이들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슈퍼 태풍 발생 빈도가 늘었고, 그에 따라 자기 삶의 터전에서 불안에 떠는 날들이 찾은 이들이다. 마냥 어둡고 우울할 줄만 알았던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 사람들은 해맑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개그맨 출신이자 방송인 이정수 홍보대사와 함께 필리핀 타클로반 현장을 찾았다. 첫 해외봉사활동을 앞두고 다소 상기된 표정인 이정수 홍보대사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짐을 한 가득 한가득 싸왔다.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증에 물어보니 "각종 게임들!"이라며 시원스레 답했다. 봉사활동과 게임? 어울리지 않을 조합이라 생각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렇게 우리는 타클로반에 도착했다.

슈퍼 태풍 하이엔이 할퀴고 간 흔적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마을, 학교와 각 집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이엔으로 필리핀에서만 6,009명의 사망자와 1,77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2년 동안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아이들에게 태풍은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공포의 대상이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 혹은 이웃의 목숨을 앗아간 존재이기 때문이다.

약 7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마요르가 스쿨(Mayorga Central School)을 방문했다. 10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이 당시 태풍으로 크게 망가졌다. 1만 9,000 달러의 돈을 들여 일부 교실을 재건했다지만 강당 등의 다목적 공간의 복구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곳은 단순히 학교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활동에도 기여하는 곳이었다. 태풍으로 가족을 잃었다는 아이들의 증언으로 황망해 하고 있을 때, 이정수 홍보대사가 검은 가방을 열었다. 제기, 양궁 게임, 줄넘기 등이 담겨 있었다. "시빠, 시빠!" 몇 명의 소년들이 제기를 보고 외쳤다. 자기네도 비슷한 놀이가 있다는 뜻이었다. 얼굴이 환해진 이정수 홍보대사가 즉석에서 제기차기 시합을 제안했고, 교실은 어느새 놀이터로 변했다. 한 사람의 홍보대사가 자신의 장기를 심분 살려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 호흡했다. 동행 취재 때 혹은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그간의 해외봉사활동보다 큰 에너지가 느껴졌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분명 한국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섞여 시간을 보내는 건 그들의 마음을 단기간에 빨리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됐다.

마요르가 스쿨, 빌라로스 스쿨, 그리고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까지 우리가 방문한 곳은 총 세 곳이었다. 어디 아이들뿐이라. 현장에 함께 동행한 플랜필리핀의 현지 스텝들까지 우리의 놀이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은 모형 과녁을 세워 놓고 했던 양궁 게임. 조별로 편을 가른 후 점수를 세는 동안 아이들은 집중했고, 자신들에게 아픔이 됐던 일들을 잠시나마 잊고 웃어 보였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해주고 원가를 베푸는 시해 차원은 아니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정수 홍보대사와 및 스태프들은 아이들 틈으로 들어가 함께 땀 흘리고, 부대꼈다. 동행한 한 스태프의 말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뭔가 도와주러 왔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모습에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한 이 스태프는 덥고 습한 현지 날씨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았다.

또 하나 신기했던 기억이 내가 만난 필리핀 아이들은 남 앞에 나서길 부끄러워하면서도 낯선 이를 좋아하고 금방 마음을 연다는 점이었다. 이정수 홍보대사를 제외하곤 유명인이 아닌 데도 하나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해달라는 아이들도 많았다.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다. 평생 살면서 다 했을 사인을 타클로반에 머무는 동안 해버린 기분이다.

국내에도 수많은 구호단체가 들어와 있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거리에 가판을 차리고 후원을 부탁하는 많은 NGO 단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좋은 마음으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구호 대상 국가 시민들의 자립도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플랜은 유리한 조건이 많다. 특정 종교나 정치 집단에 연계되지 않은 단체라는 점은 그중 가장 큰 장점일 듯하다. 적어도 특정 종교로 인해 진출이 막히는 일부 국가에서도 반길 수 있는 요건이 되니 말이다.

여기에 아동 교육 특화 역시 장점이다. 긴급구호나 현물 지원에 특화된 단체들이 있듯 플랜은 아동 중심개발사업이 중심이라고 한다. 자립의지를 키워주고 NGO 단체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 각국에 국가 사무소(Country Office)와 프로그램 유닛(Program Unit)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꾀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그만큼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간 플랜을 거쳐 간 수많은 홍보대사들이 있겠지만, 획일적 활동이 아닌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열어 두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아마 이게 수혜국 아이들이 쉽게 공감하고 마음을 여는 비법 아닐까. 비극은 또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지 모른다. 중요한 건 고통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자는 선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또 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백진희와 보건지원 후원자모임

백진희 홍보대사와 식사를 합시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플랜코리아의 캠페인 'The 좋은플랜'은 보건, 아동출생등록, 여아 교육, 유치원(ECCD), 드림빌리지 등 플랜의 주요 후원사업을 홍보대사들과 매칭한 캠페인이다. 'The 좋은플랜' 캠페인에 후원하면 각 사업에 후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가장 많은 후원이 이루어진 캠페인을 선정해 후원자와 홍보대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015년 상반기에 가장 활발하게 모금이 진행된 캠페인은 바로 '백진희와 보건지원' 캠페인이다. 이에 백진희 홍보대사와 보건지원 캠페인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식사 시간을 가졌다.



The
좋은플랜

17,000 명

예방, 치료가 가능한 질병, 영양실조로 인해
매일 목숨을 잃는 어린이 수

3,000,000 명

매년 사망하는 신생아 수

800 명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
매일 사망하는 여성 수

임산부 사망의 **99%** 개발도상국

원인은 빈곤, 부족한 의료시설의 수, 보건소와의
거리, 정보 부족, 부적절한 치료

아동의 영양 개선, 예방접종, 모기장 사용,
보건 요원 확충, 시기적절한 검진과 치료,
간단한 보건서비스 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백진희 홍보대사와 함께한 특별한 만남

2015년 9월, 백진희 홍보대사가 플랜코리아의 보건지원 캠페인 후원자들을 초청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백진희 홍보대사는 지난겨울 방문한 캄보디아 봉사활동 이야기와 보건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후원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보건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내놓은 백진희 홍보대사의 애장품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후원자들은 자신들이 후원한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들으며 모임은 마무리 되었다.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살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한 플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기쁩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 백진희 홍보대사

'The 좋은플랜' 캠페인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 아동출생등록, 여아 교육, 유치원(ECCD), 드림빌리지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The 좋은플랜' 후원자를 초청하여 홍보대사와의 식사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플랜코리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후원자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플랜코리아의 보건지원 사업

2008 9월~2013년 8월

세네갈 의료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및
아동 건강 증진 사업

2010 9월~2013년 8월

부르키나파소의 HIV/에이즈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 사업

2015 1월~12월

캄보디아 보건소 지원
6월~2018년 8월
모잠비크 산모관리를 통한 모자보건 강화 사업

나마스떼! 인도에서의 첫 휴가

첫 휴가로 인도에 간다고 하니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딱히 대단한 결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인도라는 나라에 한 번쯤 꼭 가보고 싶기도 했고, 첫 휴가인 만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사람과 차, 오토바이, 그리고 소로 가득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정신이 없었지만 말로만 듣던 인도라는 곳에 오게 되어 마냥 설렜습니다. 곧 만나게 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교문 앞에서 있으려니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불러주는 노래 속에 아이들이 던져주는 꽃 비를 맞으며 입장! 진심 어린 환대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일간 교실 벽화 꾸미기, 화단 조성, 화장실 설치 등 여타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저는 2학년 교실의 벽화를 꾸몄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도안을 완성하고 왔는데도 막상 하얗게 비어 있는 벽을 보니 앞이 깜깜했지만 모두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쉴 새 없이 색칠하다 보니 어느새 교실 안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가에 서서 수줍게 들여다보던 아이들도 어느새 교실 안에 가득히 들어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나 도구가 한국에서와는 같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플랜에서 정말 잘챙겨주셔서 불편함 없이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환하고 예뻐진 교실에서 아이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것을 생각하니 어느 부분 하나 대충 할 수 없어 꿈꿔히,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칠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림이 조금씩 완성되어 갈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것을 보니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묻은 페인트도, 신나 냄새와 아픈 팔도 아이들 웃음소리에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벽화를 마치고는 학교 아이들과 미니올림픽을 했습니다. 시설 공사와 벽화 작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비가 왔었는데, 아이들과 놀 시간이 되니 날씨도 화창하게 개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응원단, 선생님과 봉사단원 모두가 함께 어울려 뛰어 보니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말이 필요 없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미니올림픽은 대성공!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고, 아이들에게 작지만 웃음 가득한 기억을 남겨 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벽화 그리기, 미니올림픽 같은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화를 보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그림들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라는 곳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친근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니 올림픽 때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운동장 멀리 교문에 모여 구경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학교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으니 너도 어서 오라고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활동을 통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인근의 아이들도 학교라는 곳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학교라는 곳에 가고 싶게 된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 자신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먼 나라 인도 빈촌의 학교가 ‘우리 학교’가 되는 데에는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과의 짧은 교감은 예쁜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절대 잊지 못할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 하나 없이 출발했지만 부족함 없이, 불편함 없이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플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킬수 있어요

7월의 어느 금요일, 대한민국을 웃게 하는 대표 개그맨 김대희, 권재관, 조윤호, 허민이 하나둘 인천공항으로 모여들었다. 개그콘서트 연습을 잠시 뒤로 하고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다. 김대희, 김준현, 김지민 등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들이 소속된 JD Bros는 플랜코리아와 나눔 협약식을 맺고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JD Bros 개그맨들은 베트남 띠네 마을 어린이들과 일대일 아동결연을 맺고, 이 아이들을 만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베트남 꽝뜨리 지역 띠네 마을을 방문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져요. 아이들의 웃음을 통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웃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띠네 마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웃을 수 있도록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다낭에서 후에를 지나, 꾸불꾸불 산길을 차로 여덟 시간. 띠네 마을은 꽝뜨리 지역 서쪽 산악지대로 주민 대부분은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나 농산물이 다양하지 않고 재배 기술은 낙후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떨어져 물건을 사고팔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소수 민족이어서 더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 마을에 사는 82개의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곳입니다.

마을에는 상수시설이 있지만 2009년과 2012년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예산 부족과 주민들의 역량 부족으로 파손된 상수시설은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마을 주민들은 빗물을 받아 마시거나 인근 냇가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오염이 심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깨끗한 물을 쉽게 얻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초등학교. 하지만 이용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식수대와 사용하고 싶지 않은 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둘러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한 악취는 그렇다 치고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녀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여선생님과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식수대는 태풍 이후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어 이끼가 잔뜩 껴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목이 마르면 수업을 빠지고 냇가로 물을 길으러 가야 한다니, 식수 문제는 건강의 문제만이 아닌 학교출석률, 학업성취도 등 학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한 쪽에 위치한 학교 도서관은 사실 말뿐인 도서관이었습니다. 책도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책들은 오랜 기간 학생들이 사용해서 훼손이 심할뿐더러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중등학교 진학률이 낮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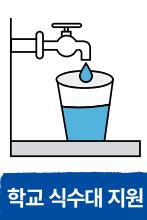
JD Bros가 함께합니다.

베트남 꽝뜨리 띠네 마을의 변화를 위해 저희 JD Bros 개그맨들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나눔 협약식을 시작으로, 띠네 마을 아이들과 일대일 아동결연, 띠네 마을 봉사활동,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플랜코리아 홍보부스 운영 등 플랜코리아와 함께 후원 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꽝뜨리 띠네 마을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베트남 띠네 마을 아이들의 아름다운 웃음,
JD Bros 개그맨들과 함께 지켜주세요.”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1만원씩 100명이 힘을 합치면 학교 도서관에 책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2만원씩 250명이 힘을 합치면 학교에 식수대가 설치되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고, 3만원씩 400명이 힘을 합치면 남녀 구분된 깨끗한 학교 화장실이 지어지고, 5만원씩 350명이 힘을 합치면 띠네 마을에 상수시설이 수리되어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띠네 마을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잊지 않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띠네 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여방법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 이벤트 ▶ JD Bros의 조이&드림 프로젝트
▶ 정기후원/일시후원/아동후원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종료 안내

2016년부터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플랜코리아와 함께 해 주시는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우편발송 경비를 절감하여 더 많은 아동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이 중단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홈페이지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Tel _02.790.5436(내선311~314) /Email_plan_a@plankorea.or.kr

플랜코리아와 함께하는 즐거운 모임, 제17회 The 좋은 모임 StamPLAN!

플랜 후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스템프를 찍어드리고,
3개 이상의 스템프를 모으면 특별한 선물까지!

언제 2015년 11월 21일(토) 오후 1시~5시
누구와 플랜코리아 후원자 및 일반 참가자 모두 환영

참여방법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합니다.

kno@plankorea.or.kr 또는 전화 02)790-5436으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플리마켓에서 물품/재능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kno@plankorea.or.kr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참가비 및 수익금은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에 기부됩니다.



Plan Korea

PLAN KOREA PLAN KOREA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SIDE BY SIDE WITH SYRIAN REFUGEES

가혹한 전쟁 속, 갈 곳 없는 난민 어린이

전 세계를 울린 사진 한 장으로 시리아 난민사태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3년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시리아 아동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 난민은 4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2015년 8월 기준) 이 숫자에는 이미 유럽 등지에 이민자로 등록된 27만 명과 다른 지역으로 흘어진 수천 명의 난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혹한 전쟁 속에 560만 명의 아이들이 매시간, 매 순간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이집트나 리비아, 수단에 불법으로 정착하려는 시리아 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3살 어린이의 죽음을 계기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난민들의 정착, 그 이면에는 매우 길고 어려운 여정이 있다. 바다를 건너며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지만, 안전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의사하거나 때론 환영받지 못하는 땅에 도착하기도 한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유럽으로 피한 난민들의 4분의 1은 어린이들이다. 올 상반기에만 10만 명의 아이들이 유럽으로 망명했고 30만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약 2,600명은 망명을 시도하다 끝내 사망했다.



“아이들이 열차 레일 위에서 잠들거나, 의사한 사진을 보는 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몇몇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국가가 난민들의 인도적 지원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플랜인터내셔널 대표 앤-버젯 알브렉센

Side by Side,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과 함께합니다

플랜은 이집트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집트 외교부와 함께 이집트 내 그레이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다미타 지역의 시리아 난민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 공급과 심리적 상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계속 악화되는 환경 속에 아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플랜은 현재 15,0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식수 및 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아동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용품, 교복, 교재 및 학비, 임시 교실 운영 등을 지원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정서적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6세에서 18세의 4,10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했으며, 1,400명의 부모에게 아동보호 양육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와 함께 77,216명의 난민들에게 긴급구호 식량을 전달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난민들이 긴급 구호 식량을 기다리며 굶주리고 있다.

향후 플랜은 이집트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난민 지원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플랜코리아 역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SNS, 뉴스레터 등의 채널을 실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잃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도움으로 시리아 난민 어린이 한 명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ARS 060.700.1170 (한 통화 5,000원)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 후원하기 ▶ 긴급재해지원 ▶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더불어 사는 사회

정비기술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5월의 어느 금요일, 야근 중 팀 동료가 해외봉사활동 모집공고 협조전을 내밀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할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는 플랜코리아와 현대자동차, 코이카가 함께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2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대에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운영진을 할 정도로 봉사활동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을 생각할 여유가 많이 없어졌었는데, 이런 기회를 알게 해준 동료에게 고마웠다. 회사 생활 12년 동안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정말 뿌듯하겠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봉사팀은 4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교육내용을 선정했다. 교육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어느덧 출발날짜가 되었다. 8월 25일 화요일 인천공항에는 가슴에 태극기가 새겨진 하얀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니 자부심과 책임감,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묘한 감정들이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015 봄호 플랜코리아 소식 참조



5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캄보디아의 첫인상은 '엄청 더운 나라구나'였다. 속소에 도착해 짐 정리를 하니 새벽 2시 정도가 되어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교육봉사를 펼칠 캄보디아 프놈펜 NPIC 대학교 내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학생들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몇 번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다. 플랜의 사업지원을 통해 캄보디아 내에선 수준급에 속하는 자동차 정비 학과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학교를 막상 가보니 우리나라 공업고등학교 자동차학과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제한적인 예산과 기자재로 강사들과 학생들의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조는 출발 전 준비한 교육과정을 조금 수정해 진단장비 교육을 이론이 아닌 100% 실습으로 다시 준비했다.



첫 교육을 시작할 때 많이 긴장됐다. 많은 것들을 잘 전달하고 싶다는 부담감과 우리나라로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앞이라 더 긴장감이 들었던 것 같다. 교육 내내 강사분들과 뒤에서 듣고 있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대단했다. 이들에게 부족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고 싶었다. 긴장과 부담감에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느낄 수도 없이 첫날이 끝나고, 피곤함에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일찍 잠들어서인지 컨디션이 엄청 좋았다. 하루가 지나서인지 학교 풍경이 어제보다 더 눈에 잘 들어왔다. 캄보디아 강사들과 학생들도 첫날에 보인 경계심과 조심스러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다. 기분 좋게 둘째 날 교육을 마치고, 저녁에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서는 옥수수와 고구마, 소시지를 구웠고, 우린 감자전을 만들었다. 각 나라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서로에게 대접한다는 것이 뿌듯했고, 정말이지 반죽에 온 정성을 담았다. 그렇게 서로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던 순간이 기억에 참 많이 남는다.

걱정과는 달리 무사히 마지막 교육일정까지 마무리하고, 강사와 교육생들이 모두 모여 수료식을 진행했다. 봉사팀 강사분들과 드림센터 강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앞으로 나와 수료증을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뒤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 서로 돋고 돋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서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서비스사업부 정비기술 재능기부 봉사활동 4박 5일의 모든 일정이 끝이 났다. 4박 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느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꼭 다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봉사활동 기간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후원자 인터뷰

김석중 후원자

플랜코리아와 후원자가 함께 떠나는 'The 좋은여행'으로 2011년 2월 네팔을 방문한 이후, 매년 네팔 후원아동을 만나러 떠나는 후원자를 만나보았다. 주인공은 김석중 후원자(60, 광명전기 대표). 김석중 후원자님은 10월 후원아동 사비나를 만나러 네팔행 비행기에 다시 한 번 몸을 실을 예정이다.

아동후원을 시작한 지 꽤나 오래됐죠. 98년도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후원자번호도 천 번대예요.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플랜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양친회로 도움을 받다가 경제성장을 계기로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로, 후원국으로 바뀌었다는 글이었어요. 초창기라서 후원자가 많지 않으니 후원을 시작해달라는 기사였는데, 그래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3만원으로 좋은 일 하는구나 생각만 했지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죠. 2002년인가 첫 후원아동인 방글라데시 오지파가 만 18세가 되어 졸업을 하고, 네팔의 사비나(Sabina)를 만나게 되었죠. 그 후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2010년 연말에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방문프로그램 'The 좋은여행'이라는 게 있으니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신청을 했죠. 이렇게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제가 네팔에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힘들었던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느낌을 네팔에서 받았어요.

매번 갈 때마다 다음엔 오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네팔에 방문했던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요. 잔상이 자꾸 남아서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벌써 다섯 번째네요.

제가 좋아서 자꾸 가게 돼요. 가서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제가 좋아서. 사비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봐야겠죠. 사비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해요. 저 번에는 부모님을 만나서 사비나를 빨리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비나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네팔은 조혼이 굉장히 흔한 나라인데,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교육을 받기 힘들어지니까. 부모님께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죠.

매년 방문하다 보니 가족 같아요. 그 가족하고 친해지는 건 물론이고, 사비나가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 속 그 친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할 때 친구 선물까지 같이 사가요. 방문하고 오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한 명 더 후원을 시작했죠.

처음에 방문했을 때, 제가 전기 일을 하니까 조그만 형광등을 달아주고 왔어요. 그다음에 방문해서 보니 형광등을 단 집이 거의 쓰러져가고, 그 옆에 작게 슬라브로 집을 지었더라고요. 거기에는 등도 없고, 그냥 전기만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또 마음에 걸려서 한국에서 LED 등을 사가서 달아줬어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잘 들어오더라고요. 보기 좋았죠. 올해도 방문한다고 하니 주변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줘서 LED 등을 몇 개 더 가져가요. 필요한 곳에 설치해줄 생각이에요. 플랜사무소도 많이 낡았던데, 거기에도 달아주고.

네팔에 크게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사비나가 사는 마찬푸르 지역에 큰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피해를 본 가구들이 있대요. 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오고 싶어요. 조그만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절 알아봐요. 플랜 직원도 반가워하고, 방문하면 그날은 잔칫날 같아요.

후원이라는 게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과 사랑. 작은 것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

후원 시작할 때 짐안 살림이 난其他国家 않았어요. 셋방살이할 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하게 되겠죠. 사람마다 형편이나 여건이 다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아동방문을 꼭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후원아동을 방문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자꾸 생각이 나서 매년 이렇게 가게 되네요.

지구촌을 간다 4

글 | 현대제철 기술연구소 응용기술개발팀 박선아 과장 사진 | 현대제철 미얀마 봉사팀



현대제철 미얀마 해외봉사활동을 마치며

- 행복했던 미얀마에서의 5박 7일간의 동행

미얀마에서 소중한 5박 7일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이 순간. 뱨야창 학교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눈빛이 아른거린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마을을 떠나기 전 뱨야창 학교 선생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길 희망합니다”라는 말에 선뜻 답하지 못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지금이라도 답하고 싶다. “저도 언제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6일 드디어 현대제철 미얀마 봉사단원이 되는 날이다.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부담감과 내가 그곳에서 도움이 되는 봉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비행기로 약 6시간, 차를 타고 약 1시간 반을 달려 뱨야창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뱨야창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우리 봉사단을 환영하기 위해서 현대제철과 플랜 로고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만 생각했는데 마을 주민들의 큰 환대를 받고 나니 걱정이 앞섰다. 내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해낼 수 있을까? 아이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어진 봉사를 끝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우리 현대제철 미얀마 봉사단은 학교 외벽과 화장실 벽화 그리기, 교실 내·외벽 페인팅, 천장 파티션 수리, 책걸상 수리 및 페인팅 등의 노력봉사를 진행하였으며, 4개의 조로 나누어 바람개비 만들기, 풍선아트, 칼라믹스, 비즈공예, 티셔츠 만들기, 나노블럭 만들기 등의 교육 봉사를 진행하였다. 내가 주로 한 노력 봉사는 학교 외벽 및 화장실 벽화 그리기였는데, 미얀마에서는 벽화를 그리는 문화가 없어서 승인을 받는 업무조차 매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사단이 그리는 미얀마 최초의 학교 외벽 벽화를 최대한 아름답게 완성하는데 사명감이 생겼다.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 모두 정성스럽게 임했으며, 아름다운 벽화를 완성해 낼 수 있었다. 뱨야창 학교 학생들이 꿈을 꾸는 공간을 우리 봉사단이 그린 아름다운 벽화로 채운 것 같아 정말로 뿌듯했다.

봉사활동 마지막 날, 우리 봉사단은 뱨야창 학교 학생들과 미니 운동회를 진행했다. 전교생 221명과 봉사단 18명이 하나가 되어 진행한 처음이자 마지막 활동이었다. 봉사라기보단 아이들의 웃음을 통해 봉사단원들이 힐링이 되는 힐링캠프 같았다. 아이들은 처음 접해본 게임과 도구들을 즐겼으며, 다치는 학생 한 명 없이 안전하게 운동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21명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 띤 미소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봉사단과 함께한 운동회가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번 현대제철 미얀마 봉사단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해서 봉사를 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봉사활동을 마친 지금 드는 생각은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했으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 온 것 같은 느낌이다. 뱨야창 학교 아이들의 순수함, 뱨야창 학교 선생님들의 사명감, 미얀마 주민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거라 믿는다. 우리 현대제철 미얀마 봉사단의 손길로 아름답게 변화한 뱨야창 학교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머나먼 땅 한국에서 기도한다.





No.1 헬스케어 그룹 쥬비스가 르완다 어린이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합니다.

'고객에게 하듯 짓 하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선물하는 No.1 헬스케어 그룹 쥬비스는 지난 2월 플랜코리아와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르완다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플랜코리아와 함께 르완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의료보건, 식수위생, 경제지원, 아동권리보호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쥬비스의 임직원과 르완다 아동들의 인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임직원 해외봉사나 후원아동과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쥬비스 각 지점에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랜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해외아동결연 후원에 동참할 경우 고객들에게 쥬비스 헬스케어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의 참여 또한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쥬비스의 노력으로 플랜코리아 아동결연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과 고객의 수는 현재 200여 명에 이른다.

No.1 헬스케어 그룹 쥬비스는 이 외에도 저소득층 비만 여성과 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한 작은 선물 프로젝트와 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고통받는 장애인을 위한 디딤 프로젝트, (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 우리 주위의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캄보디아 어린이를 위한 캄보디아 우물 지원 사업, 삼성역과 함께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침밥 캠페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사랑 나눔 바자회, 한빛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독거노인 푸드 배송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고객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선물하는 쥬비스 그룹은 전 직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우리 주위의 이웃과 나누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쥬비스 그룹은 전국 22개의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다이어트 컨설팅 전문기업 쥬비스를 필두로 간편 푸드와 현미빵을 제공하는 푸드밸런스, 다이어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쥬비스 아카데미, 비만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는 비만 연구소와 함께 다섯 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로가닉 건강 레스토랑 오율, 고객의 몸에 이로운 것만 제공하는 한식 레스토랑 이로울리, 홍보 마케팅 대행사인 제이에이스 컴퍼니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No.1 헬스케어 그룹이다.



캄보디아 식수타워를 지원해주세요!

매일 아침,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등교 길에 책가방과 함께 꼭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병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주 내에서 설사병을 앓는 아동은 36.8%입니다.

오염된 식수는 설사병,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건강과 직결되는 요인입니다.

깨끗한 물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학교 내 식수타워 설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식수타워**

식수타워의 특징

- 하루 1만 리터의 식수 정화
-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보호
- 세면대 설치로 어린이들의 손 씻는 습관 향상
-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디자인
- 지역위원회와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식수관리위원회 조직 후 식수타워 운영 및 관리
- 식수 · 위생 교육 제공

후원금액: 300만원

후원기간: ~2015년 12월

식수타워를 지원해주시면,

후원자님의 성함이 들어간 현판이 설치됩니다.

식수타워 설치 완료 후, 사진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

문의: 02-545-0658 / kno@plankorea.or.kr

*플랜코리아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
매년 "The 좋은 선물"을 통하여
식수타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Timor-Leste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브루나이 다음으로 작은 국가이다.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가장 가깝지만 호주 대륙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호주로부터 기후적 영향을 받는다. 호주로부터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사막 열풍의 영향으로 인해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할 수 없는 자연환경이다. 2015년 추정 인구는 110만 명이다. 주요 종족은 테툼(Tetum)족으로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이외 말레이계와 파푸아계의 주민 및 기타 36개 종족이 거주한다. 수도인 딜리(Dili)에는 인구의 18% 가량 되는 16만 명이 거주한다.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국민의 90%가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으며, 기타 무슬림이 4%, 개신교가 3%, 힌두교가 0.5% 정도이다. 언어는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토속어인 테툼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동티모르는 아직 화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정도로 경제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3년 11월부터 5종류(1, 5, 10, 25, 50)의 동전인 켄타보(centavo)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달러가 통용되고 있다.



위치: 티모르 섬의 동부
수도: 딜리 (Dili)
언어: 테툼어, 포르투갈어
인구: 110만 명 (2015년 3월 기준)
평균 수명률: 67.5세 (2013년 기준)
문맹률: 58.3% (2014년 기준)
GDP (1인당 기준): 40억 \$ / 세계 154위 (2015년 기준)
인간개발지수(HDI) 국가 순위: 128위 (2013년 기준)

플랜동티모르에서는?

플랜동티모르는 아동 권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동 중 40% 이상이 가정 및 학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 부모 및 교사들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랜은 2001년부터 동티모르에서 빈곤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보건, 아동보호, 생계지원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2006년 정치적인 불안정 사태 이후 수도 딜리(Dili)에서 집과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플랜은 라우템(Lautem)과 아일레우(Aileu)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플랜동티모르는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건립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유아교육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건강 증진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청년들의 취업을 돋기 위해 직업 및 창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주민들이 좀 더 위생적인 생활을 하도록 위생교육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돋고 있다.

플랜동티모르는 향후 5년간 사회 시설이 부족한 시골 지역에 더 많은 교육 기관과 의료 센터를 설립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의 건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에게 영양 및 위생 교육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도 시설 및 위생 시설을 늘릴 것이다.

플랜 동티모르는 지난 10년간 아동 교육, 식수 및 위생, 아동 보호,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유아 및 초등교육 발전, 식수 및 환경 개선, 아동 권리 보호, 청소년 사회 참여 증대, 자연재해의 예방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여름호 이벤트 당첨자

김민지, 서정화, 이선아, 임은혜, 최은지 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그림찾기

틀린 그림을 (5개)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참여방법 하나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업로드!

참여방법 두울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5년 겨울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롯데백화점과 베트남 제3롯데스쿨 완공식 진행

플랜코리아와 롯데백화점은 베트남 타이응웬 성, 딘호아 지구, 까우 비엔 마을에 제3롯데스쿨을 완공하고 완공식을 진행했다. 타이응웬 성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악지대로 베트남 전체 빈곤율의 17%를 차지하는 극빈한 지역 중 하나다. 제3롯데스쿨 사업으로 까우 비엔 마을 초등학교의 교실 개보수를 비롯해 화장실 및 급수시설 설치, 학교당장 및 운동장 조성, 유키원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부엌 마련, 교내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했다. 학교의 완공으로 초등학교·유치원 재학생과 향후 입학생을 포함해 140여 명의 어린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롯데스쿨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산간마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시설을 만들어주고 있다.



캄보디아 청소년들 위해 중학교 지원

플랜코리아가 지원하는 캄보디아 중학교 건립이 마무리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한 중학교 건립 지원 프로젝트는 모든 아동, 특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이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캄보디아 씨엠립 주, 반테이스레이 지역 룬타엑 마을에 건립된 룬타엑 종합학교의 완공으로 350여 명의 중학생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내 화장실과 식수시설 설치를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위생환경과 건강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1월 현대자동차 대학생 봉사단 해피무브 학생들이 룬타엑 종합학교 건립 공사에 참여해 캄보디아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에 힘을 실어주었다.



배우 문가영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위촉

배우 문가영이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돼 여아 권리신장 캠페인에 동참한다. 문가영은 아역으로 데뷔한 후 영화 '장수상회', 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왕가네 식구들'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배우이다.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문가영은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개발도상국 여자 아이들의 교육권 및 기본적인 권리신장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문가영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이 교육받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여아 권리신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One Ball One Dream 야구대축제

9월 18일 에버랜드에서 One Ball One Dream 야구대축제가 열렸다. One Ball One Dream 캠페인은 플랜코리아, 에버랜드, MBC플러스가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5월부터 에버랜드 내 야구 부스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피칭캠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야구대축제에는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사전 공지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와 현장에서 참여한 참가자들이 3:3 스크린 야구 대결을 펼치고, 홍보대사 이정수와 신수지가 참여해 그 열기를 더했다. 이정수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야구대축제는 신수지 홍보대사보다 빠른 구속으로 공 던지기, 이정수 홍보대사보다 탁 높은 점수 내기, 신수지 홍보대사 일루전 시구 포즈 따라하기 포토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펼쳐졌다. 캠페인 참가 수익금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더착한커피, BIAAG 캠페인 위한 GIVE IT TO ME 파티 진행

기부하는 커피전문점 더착한커피가 플랜코리아의 여아 권리신장 캠페인에 동참한다. 문가영은 아역으로 데뷔한 후 영화 '장수상회', 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왕가네 식구들'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배우이다.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문가영은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개발도상국 여자 아이들의 교육권 및 기본적인 권리신장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문가영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이 교육받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여아 권리신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태국 바다집시 모캔족 어린이들을 위한 기본 권리 증진 사업

플랜코리아는 태국 남부 안다만 일대의 토착 소수민족인 모캔족 어린이들의 기본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마무리했다. 바다의 집시로 불리는 모캔족은 바다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열악한 생활환경과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교육, 위생, 보건환경 모두 낙후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적절한 교육시설이 부족했고, 부모들은 아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였다. 이에 플랜코리아는 2013년 9월부터 모캔족의 사회적 자립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학금 지급, 화장실 건축, 빗물 취수장치 설치, 이동배 수리 등 교육지원, 위생환경 개선, 생계지원 활동에 힘을 쏟았다. 플랜코리아의 교육지원 및 위생, 생계지원을 통해 모캔족 아이들은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에볼라 사태 아동착취, 10대 임신 등 영향 끼쳐

에볼라 사태가 아동착취와 폭력, 10대 임신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플랜인터내셔널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인터내셔널은 시에라리온 7~18세 아동 1,193명을 대상으로 에볼라가 미친 영향을 조사한 '에볼라 피해 아동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에 관한 조사(Children's Ebola Recovery Assessment)'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볼라로 인한 9개월간의 학교 폐쇄는 아동노동과 착취, 가정과 지역 사회 폭력에의 노출, 10대 임신을 증가로 이어졌다고 아동들은 답했다. 또한 아동들은 시에라리온 정부에 '에볼라 종식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도입', '고아가 된 아동에게 장학금 지원' '보건 시스템 강화' '아동노동 및 착취 근절에 힘쓸 것' 등 아동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액센츄어, 330만 달러 기부로 청년고용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Accenture)에서 중남미 청년고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미화 330만 달러를 기부했다. 청년고용 프로그램은 소외된 청년들에게 기술 및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돋는 프로그램이다.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 4천 명의 중남미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단체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하며, 액센츄어 특허의 디지털 기술 제공 및 고용 무료 상담도 지원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액센츄어는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활동인 '성공을 위한 기술'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아시아 5,8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고용 프로그램을 착수하여 지원해왔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클럽 첼시FC와 파트너쉽 체결

영국 프리미어 리그 명문 축구클럽 첼시FC가 플랜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첼시의 홈구장인 스텁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첼시FC는 플랜 로고가 새겨진 첼시의 유로피안 셔츠를 선보이며 전 세계 관중들에게 플랜과의 파트너쉽 소식을 알렸다. 플랜과 첼시는 향후 3년간 상호협력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어린이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콜롬비아에서 취약 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축구를 통해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들이 성평등과 존중에 대해 배우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Champions of Change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홈페이지, SNS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플랜의 로고를 표기하고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어린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얀마, 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착수

미얀마와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발생해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 중이다. 미얀마에서는 2주간 쌓아진 폭우와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전체 14개 주 가운데 12개 주가 큰 피해를 입고, 최소 36명이 사망,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플랜은 가장 피해가 큰 라카인(Rakhine)과 민비야(Minbya) 지역에 대피소 지원, 7천 명의 이재민을 위한 식수, 식량, 위생지원 등 필요물품들을 전달하는 등 긴급구호에 매진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23개 지역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86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 플랜은 응급 피난처, 식수 위생 구호품 지급 등 긴급구호 대응에 착수하고, 푸자(Punjab) 지역에서 인명 구조와 후송 작업을 도왔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어린이들이다. 플랜은 재난 지역에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하여 아동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동 출생등록캠페인 10년 그 성과와 나아갈 길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Count Every Child가 출생등록지원 활동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었다. Count Every Child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기본적인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출생등록 캠페인이다. 1998년 Universal Birth Registration(UBR)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에 착수하여 2005년부터 전 세계 4천만 명의 출생등록을 돋고, 1억 4천 3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기본 권리와 보장받을 수 있도록 10개국에서 법률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어린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생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2억 3천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은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플랜은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출생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디지털 출생등록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채널 니켈로디언과 Together For Good 캠페인 진행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과 파트너쉽을 맺고 Together For Good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를 위한 자신의 방법을 소개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전 세계 어린이들 중 4명 어린이의 사례를 최종 선발하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는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니켈로디언의 시상식에 초청되어, 미국 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 니켈로디언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로 1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누적 구독자는 거의 10억 명에 달한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플랜의 후원아동 이야기가 니켈로디언 홈페이지 투표와 TV에 소개되어 플랜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알렸다.



PLAN SHOP NEW ARRIVALS

플랜 로고 머그컵 출시

머그컵의 수익금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사용됩니다.



나눔팔찌 1+1 이벤트

플랜샵의 인기템! 나눔팔찌 1+1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친구, 연인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플랜샵에서 구매해보세요



생일카드



Plan Shop

W W W . P L A N S H O P . C O . K R

구입 및 문의: 플랜샵 www.planshop.co.kr 02-516-5108

